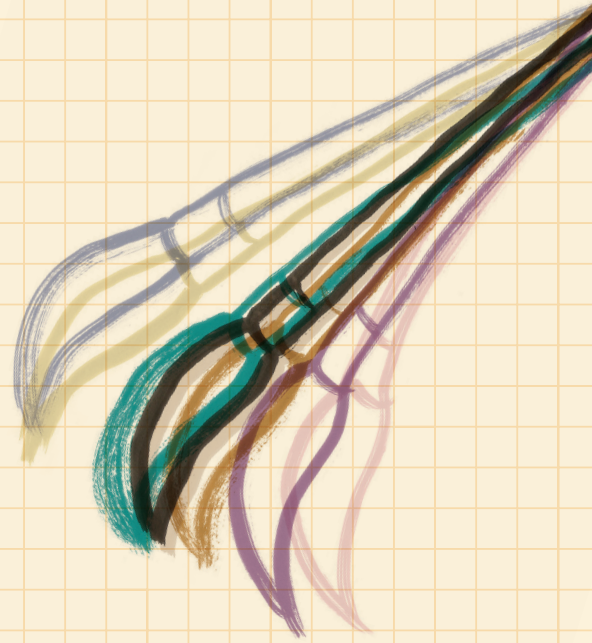




화가와 고양이

화가와 고양이
김소선 글 · 그림 / 책고래



천진난만 상상쟁이 화가 고양이가 온다!

화가와 함께 살고 있는 고양이가 있어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고양이는 물감 물을 할짝할짝 핥아 먹지요. 고양이는 푸른 물을 먹으면 푸룽푸룽 잎이 돌아나고, 노랑 물을 먹으면 노랑나비가 되고, 붉은 물을 먹으면 할짝 핀 붉은 꽃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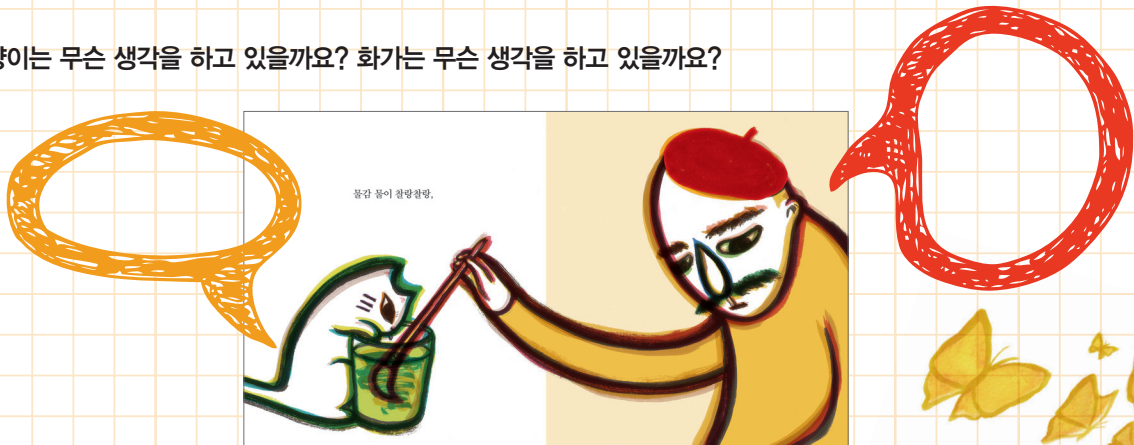
그림 그리기에 몰두해 있던 화가는 자꾸만 옆에 와서 물감을 먹는 고양이가 방해가 되고 성가시기도 하지요. 그래서 “안 돼, 저리 가!”라고 쫓아버립니다. 고양이는 물감이 좋은데, 그림이 좋은데 말이죠. 생각에 잠겼던 고양이가 행동 개시를 합니다!

도화지 위로 사뿐사뿐, 발자국을 콧코! 화가의 그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화가와 고양이》는 그런 아이의 천진난만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스펀지처럼 물감 물을 빨아들이는 고양이는 바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지요. 어른이 보기에 천방지축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도 아이들은 저마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혼내고 야단치기보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다려줄 때 아이들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그려 낼 수 있는 진정한 화가가 됩니다. 화가가 금방 야단치지 않고 곰곰이 생각한 뒤 “잘했어!”라며 고양이를 칭찬하듯, 아이가 처음 연필을 잡았을 때를 떠올리며 아이들이 그려 낼 세상을 기다려 보는 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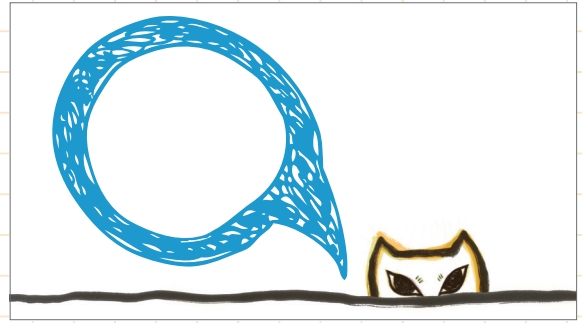
- 01 화가와 함께 살고 있는 귀여운 고양이가 멋지게 사고를 쳤네요! 고양이는 큰일 났다, 화가 아저씨한테 혼나겠다! 걱정했는데, 화를 낼 줄 알았던 화가 아저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화가 아저씨는 왜 미소를 지었을까요?
다음 그림에 고양이와 화가 아저씨의 속마음을 써 넣어 보세요.

고양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화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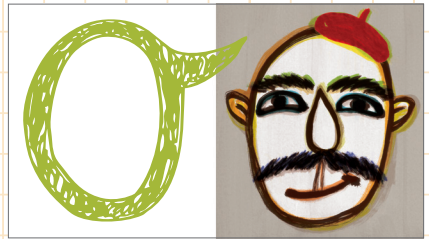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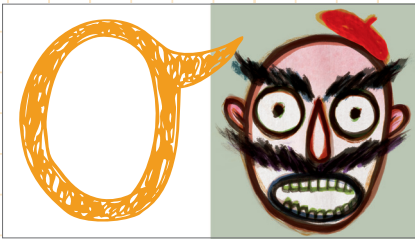


물감 물이 잘랑잘랑.

화가에게 혼이 난 고양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화가의 표정이 왜 이렇게 변했나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 02 《화가와 고양이》의 고양이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던 중에,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콧코크, 발자국으로 화가의 그림에 도장을 찍었지요. 화가의 그림이 어떻게 변했나요? 우리도 이야기 속 고양이처럼 그림을 완성해 볼까요? 그림을 완성하고 그렇게 그린 까닭은 엄마와 이야기해 보세요.



- 03 《화가와 고양이》의 장난꾸러기 고양이를 위해, 고양이 집을 만들어 보세요. 발자국으로 화가의 그림을 멋지게 완성한 화가 고양이처럼 재활용품으로 상상력 넘치는 고양이 집을 완성해 봅시다.
- 준비물 : 세탁소 옷걸이 2개, 종이 박스, 라운드 티, 셀로판테이프, 실바늘



만드는 방법

- 1) 먼저 세탁소 옷걸이 와이어를 편편하게 펍니다.
- 2) 와이어를 둥글게 구부려 양끝을 박스의 대각선으로 꽂는다.
- 3) 박스 아래쪽으로 들어간 와이어를 꺾어 바닥에 밀착하고 테이프로 고정한다.
- 4) 나머지 세탁소 옷걸이 와이어도 같은 방식으로 박스에 대각선으로 꽂아 고정한다.
- 5) 와이어가 서로 교차하는 윗부분을 테이프로 고정한다.
- 6) 목 부분이 출입구가 되도록 티셔츠를 들썩운다.
- 7) 박스 아래쪽으로 들어간 티셔츠 부분을 잘 접어 바느질로 고정한다.

